

뉴스홈 | 최신기사

우크라 국방 "러시아 접경 지역 상황 악화 가능성 작아"

송고시간 | 2022-02-03 23:28

유철중 기자
기자 페이지

| 러 침공 위험 거듭 진화... "벨라루스 측 도발도 예상 안해"



(불가강 AP=연합뉴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불가강 인근 앵겔스 공군기지에 투폴레프(Tu)-95 전략폭격기 두 대가 출격 전 대기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영상 캡처]. 2021.1.25 knhknh@yna.co.kr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중 특파원 =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레즈니코프 장관의 발언은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과도하게 증폭하면서 우크라이나 내에 공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불안 표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레즈니코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첩보기관은 모든 변화를 감시하며 파트너 국가들의 정보와 비교하고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군의) 공격 부대 편성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훈련을 위해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에 배치된 병력을 포함해 약 11만5천 명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지난달 24일에도 러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위험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면서 전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위험한 시나리오는 존재하며 그것은 미래의 가능성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그러한 징후와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레즈니코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러시아-벨라루스 연합훈련과 관련 "우리는 확실히 벨라루스를 도발할 의도가 없으며 벨라루스 측의 도발도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우크라이나-벨라루스) 사이엔 어떠한 적대나 비우호적 오해의 근거도 없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군의 (벨라루스) 주둔이 일시적이며 훈련이 끝나면 벨라루스 영토에서 떠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 美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가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 "가장 오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이밖에 레니즈니코프 장관은 이날 독일 측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3국의 무기 수출 봉쇄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에스토니아 정부가 옛 동독제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독일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파트너 국가들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레니즈니코프 장관은 또 독일이 방탄 헬멧 5천 개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는 계획도 아직 발표만 있었을 뿐 문서로 된 답은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크리스틴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독일이 방탄 헬멧 5천 개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미국 군사원조물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에 및 DB 금지.]

cj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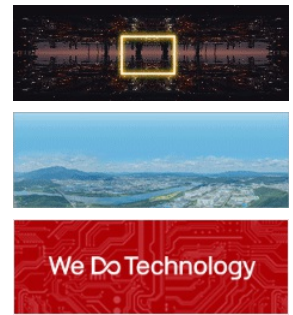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3 23:28 송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 01:18 ▶ 02:22

[영상] 입'발' 묵인제 두 눈만 열쫄쫄...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췄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7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8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9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0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8

뭐하고 놀까? #홍→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미디어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총

개인사/제휴문의